

국내 타이어 3사, 유럽 경쟁 본격화 금호, 폴란드 생산기지로 시장 공략

금호타이어, 오폴레 공장부지 확정
2028년 가동... 연 600만 본 첫 단계
유럽 매출확대 위한 현지전략 강화
고성능·고인치 중심 포트폴리오 개편

한국, 헝가리 공장 기반 점유율 확대
넥센, 체코공장 통해 현지 공급 강화

금호타이어가 유럽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와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폴란드 오폴레(Opole) 지역을 유럽 공장의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건설될 금호타이어의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으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투자금액은 5억 8700만 달러(한화 약 8606억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 판매 확대 가능성, 투자 안정성, 수익성, 인센티브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최종 2개 후보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류·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물류창고.

력·인프라 등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경쟁력과 유럽 내 공급 안정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오폴레가 최적의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은 전 세계 타이어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금호타이어에게 전략적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해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 중 유럽 매출 비중은 약 26.6%에 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유럽 공장 설립을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 성장의 발판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인치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HVP)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유럽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점유율 확대에 집

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헝가리에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국내 타이어업체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올해 3분기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전체 매출의 41%가 유럽에서 이뤄졌으며 한국타이어도 유럽 비중이 44%에 이른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7년 말까지 연간 530만 본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합평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폴란드 신공장 부지 확정으로 금호타이어는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현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보, KST와 기술기업 M&A 지원 강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촉진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우수 기술기업의 M&A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보의 민관협력 M&A 플랫폼(M&A 플랫폼)과 KST의 기술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M&A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8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2013년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2025년 11월 기준 총 178개 출자회사에 700억원을 투자하며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ST는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기보의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M&A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에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전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M&A 보증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회수단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3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에 M&A 거래정보망을 신설해 M&A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부터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수소 트랙터 상용화 검증

현대차·울산시와 실증 업무협약

CJ대한통운이 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와 손잡고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수소 트랙터 트럭을 실제 물류 노선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하고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 등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은 2일 울산시, 현대차, 현대글로벌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수소전기트랙터 실증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최갑주 CJ대한통운 더운반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차량 생산·공급부터 운송 운영, 행정·인프라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묶은 ‘패키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수소전기트랙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

트랙터 트럭을 울산항을 비롯한 울산 내 주요 물류 거점과 지역 간 장거리 운행 노선에 실제 투입해 일 운행거리, 연비, 충전 효율, 운행 안정성 등 핵심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수소 트랙터의 실증 성과를 축적하고, 향후 최적 운행 모델과 운영 기준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친환경 물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 화물차의 ‘생산-운송-활용’ 전 주기 생태계를 울산에 정착시켜 수소 기반 물류·모빌리티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갑주 더운반그룹장은 “울산시와 현대차 등 참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트랙터 트럭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운송 모델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여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NEW START 상담센터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자산·채무파악 -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 자산·채무 증빙 서류제출(소상공인) 금융·법률전문가	신청서류 검토 법원신청서류의 면밀한 검토·보완 법률전문가	신청 및 완주 지원 - 법원에 패스트트랙으로 접수·신청 - 컨설팅 등을 통한 회생파산 완주 및 재지원 법률전문가	행정비용 지원 파산관재인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라픽/ 정민주 기자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중기부·수원회생법원 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 MOU 이어 두번째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 확대 검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과 파산 정리 등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 MOU에 이어 두번째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협약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돼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현재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

생·파산 행정 지원을 받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연말 맞아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

뷰티레스트 등 가격 할인 혜택

시몬스가 연말 시즌을 맞아 올 한 해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엔드 오브 이어(End Of Year) 프로모션’을 펼친다.

2일 시몬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은 크리스마스 및 새해를 앞두고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 할인 혜택 외에 푸짐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5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린 스프레이, 8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개와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린 스프레이

등을 선물한다.

‘뷰티레스트 블랙’ 구매 시에는 올 시즌 구스 듀벳과 디퓨저 등을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국내 제조·생산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바나듐 포켓스프링’을 통해 침대의 핵심인 내구성을 월등히 향상했다.

특히 난연 매트리스는 실제 전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방지해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한다.

/김승호 기자